

2025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보고서

- 목 차 -

I. 조사 개요	1
II.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	2
1. 종합 실적/전망	2
2. 부문별 실적/전망	3
III. 기타 조사	4
1. 당초 계획 연간매출의 목표 대비 실적 전망	4
2. 당초 계획 연간 영업이익의 목표 대비 실적 전망	6
3. 생산·조직 관리 차원의 가장 큰 애로요인	9
4. 기업 부담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입법 분야	10
5. 기업성장·경영실적 개선 위해 꼭 필요한 입법 분야	11

2025. 10.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지역 제조업체의 해당 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개별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5년 9월 1일 ~ 9월 12일
- 조사대상 : 대전상공회의소 관할지역 내 업종·규모별 추출 표본업체
- 조사방법 : 표본업체에 대한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조사

3. 조사 내용

- 체감경기 및 경영환경 실적/전망, 대내외 리스크 요인
- 2025년 3/4분기 대비 2025년 4/4분기 투자 수준 예상 및 영향 요인
- 당초 계획한 연간매출 및 연간 영업이익의 목표 대비 실적 전망
- 생산·조직관리 차원의 애로요인
- 기업 부담 측면에서 우려되는 입법 분야
- 기업성장·경영실적 개선 위해 꼭 필요한 입법 분야 등

4.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 조사 대상 기업의 실적과 전망을 전분기와 대비해 ‘호전’, ‘불변’, ‘악화’ 등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함
- 기업경기실사지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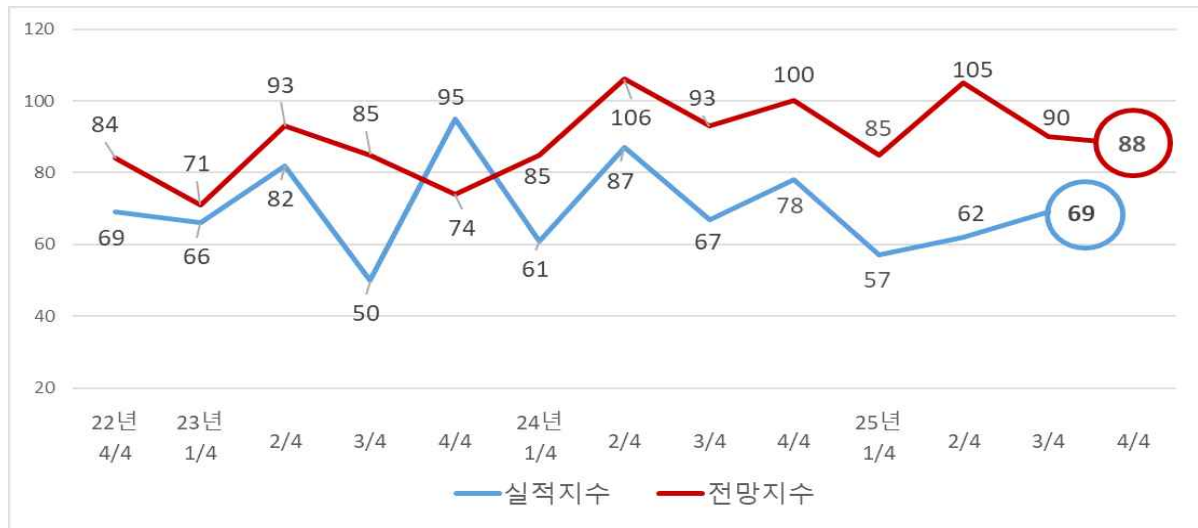
$$\text{* 기업경기실사지수} = \frac{\text{긍정적 응답업체 수} - \text{부정적 응답업체 수}}{\text{전체 응답업체 수}} \times 100 + 100$$

(0 ≤ BSI ≤ 200)

- ※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 이상의 경우 해당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의 경우 그 반대를 나타냄

II.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

1. 종합 실적/전망



(BSI 기준 : 100, 전 분기 대비)

분 기	'22년	'23년				'24년				'25년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전망지수	84	71	93	85	74	85	106	93	100	85	105	90	88
실적지수	69	66	82	50	95	61	87	67	78	57	62	69	-

■ 2025년 4/4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 '88'

○ 2025년 3/4분기 전망지수(90) 대비 2p 하락한 88을 기록하며,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소폭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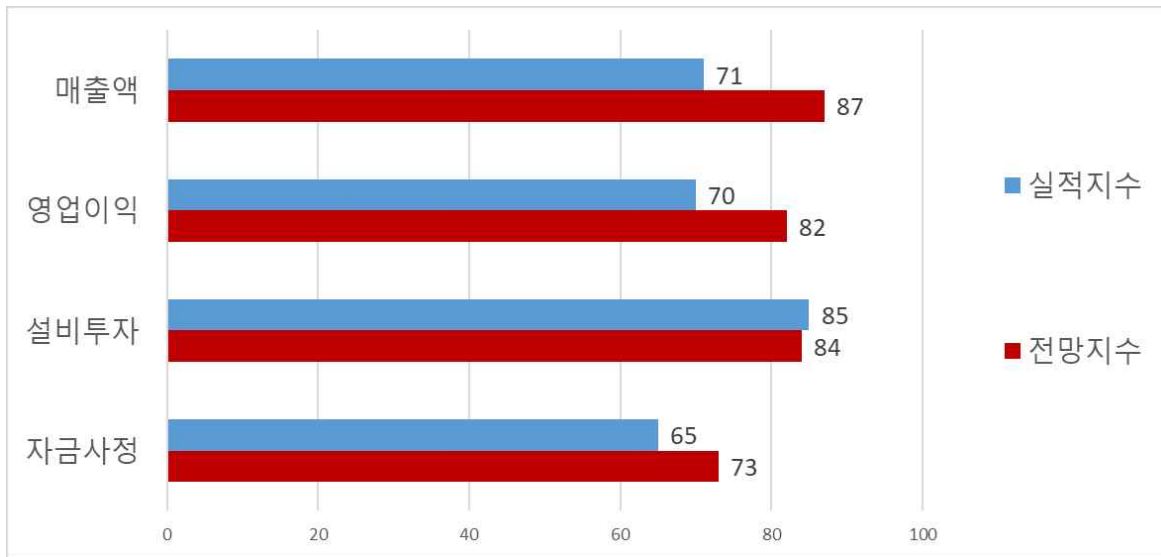
- 물가·금리 부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환율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가 향후 경영환경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다만 하락 폭이 크지 않아, 기업들이 당장 큰 위축보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

■ 2025년 3/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 : '69'

○ 2025년 2/4분기 실적지수(62) 대비 7p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에는 크게 못 미쳐 체감경기는 낮은 수준임

- 일부 기업은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 계절적 요인 등을 통해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됨
-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은 제한적이며, 체감 회복세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2. 부문별 실적/전망



(BSI 기준 : 100, 전 분기 대비)

부 문	매출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사정
실적지수	71	70	85	65
전망지수	87	82	84	73

■ 2025년 4/4분기 기업경기 부문별 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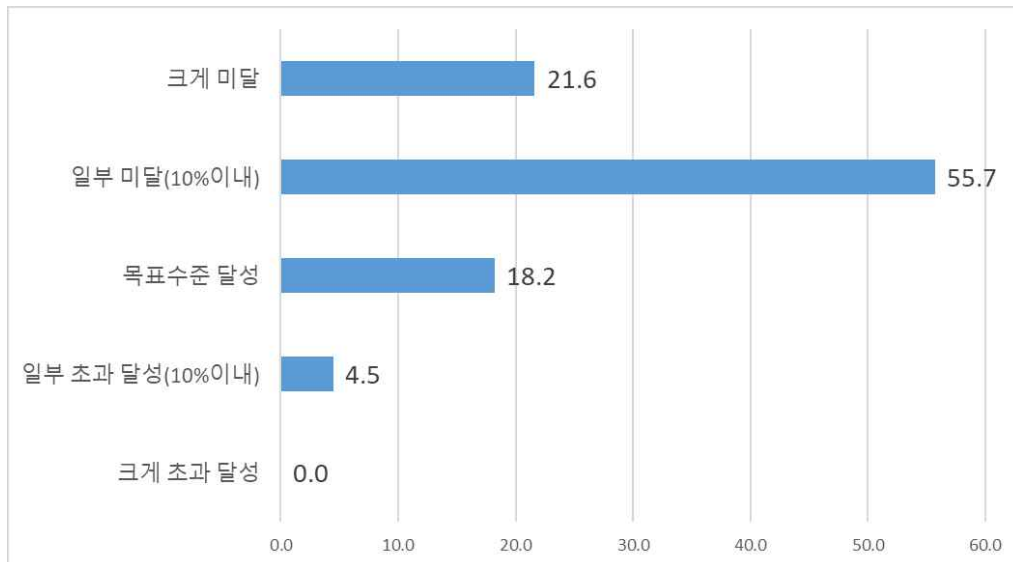
- 매출액(87), 영업이익(82), 설비투자(84), 자금사정(73)으로 전반적으로 3분기에 비해 하락세를 보임
-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이 각각 87, 82로 나타나 기업 수익성 개선 기대는 여전히 제한적임
- 자금사정 전망은 73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며, 기업들의 유동성 애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2025년 3/4분기 기업경기 부문별 실적지수

- 매출액(71), 영업이익(70), 설비투자(85), 자금사정(65)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100)에 미달하며, 회복세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금사정은 '65'에 그쳐 내수 부진과 원자재 부담 등으로 인해 실적 개선폭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임
- 설비투자는 '85'로 다른 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여전히 기준치에는 못 미침

Ⅲ. 기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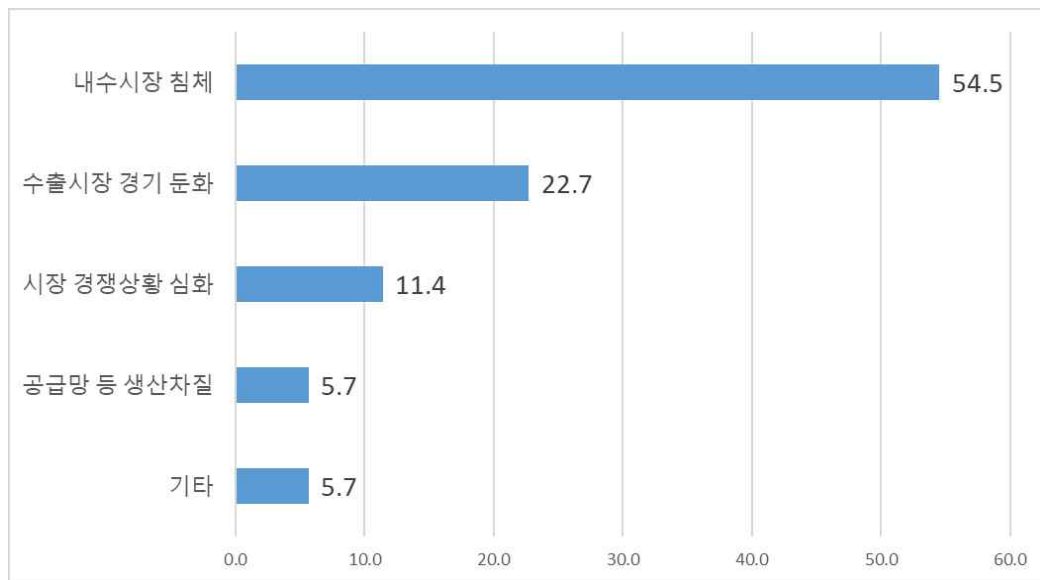
1. 당초 계획 연간매출의 목표 대비 실적 전망



구분	비중(%)
크게 미달	21.6
일부 미달(10%이내)	55.7
목표 수준 달성	18.2
일부 초과 달성(10%이내)	4.5
크게 초과 달성	0.0

- 2025년 4분기 당초 계획 대비 연간매출 실적 전망 조사 결과, ‘일부 미달(10%이내)’ 응답이 5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어 ‘크게 미달(21.6%)’, ‘목표 수준 달성(18.2%)’, ‘일부 초과 달성(10%이내)(4.5%)’ 순으로 나타났으며, ‘크게 초과 달성’ 응답은 전무함
-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미달’ 구간에 집중되면서, 내수 부진과 글로벌 수요 둔화, 고금리·환율 등 불안정한 경영환경이 매출 회복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일부 기업은 계절적요인 및 수출 호조와 정부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목표 수준에 근접하거나 소폭 초과 달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됨

1-1. 매출 증대에 가장 큰 애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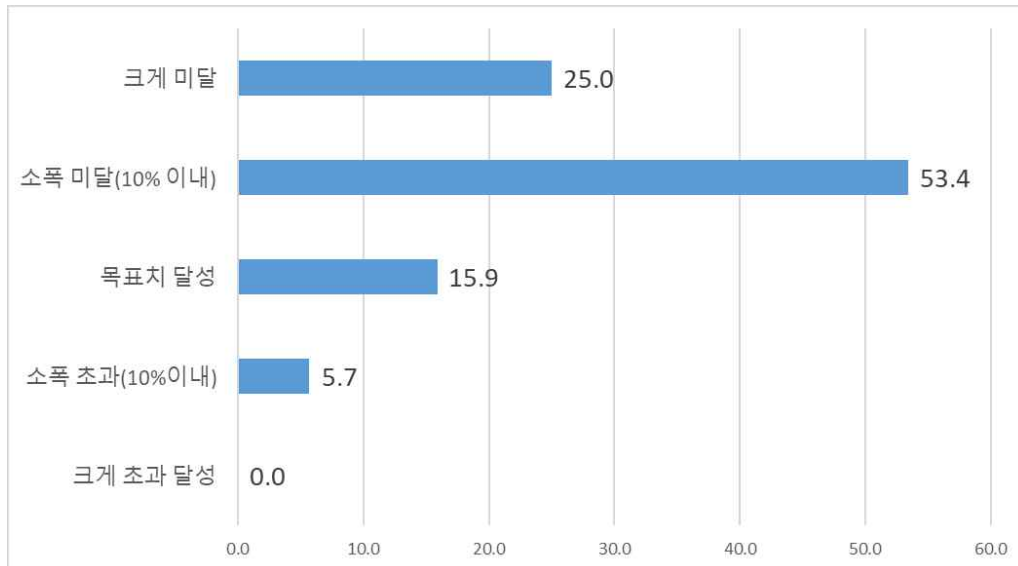


구분	비중(%)
내수시장 침체	54.5
수출시장 경기 둔화	22.7
시장 경쟁상황 심화	11.4
공급망 등 생산차질	5.7
기타	5.7

- 2025년 4분기 매출 증대를 가로막는 주요 애로 요인으로서는 ‘내수시장 침체’가 54.5%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그 뒤를 이어 ‘수출시장 경기 둔화(22.7%)’, ‘시장 경쟁상황 심화(11.4%)’, ‘공급망 등 생산차질(5.7%)’, ‘기타(5.7%)’ 순으로 집계됨
-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이 여전히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여기에 글로벌 수요 둔화와 수출 불확실성, 경쟁 심화 등이 겹치면서 매출 확대가 제약된 것으로 보임. 특히 내수 부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지역 기업들은 내수 진작과 비용 부담 완화 지원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2. 당초 계획 연간 영업이익의 목표 대비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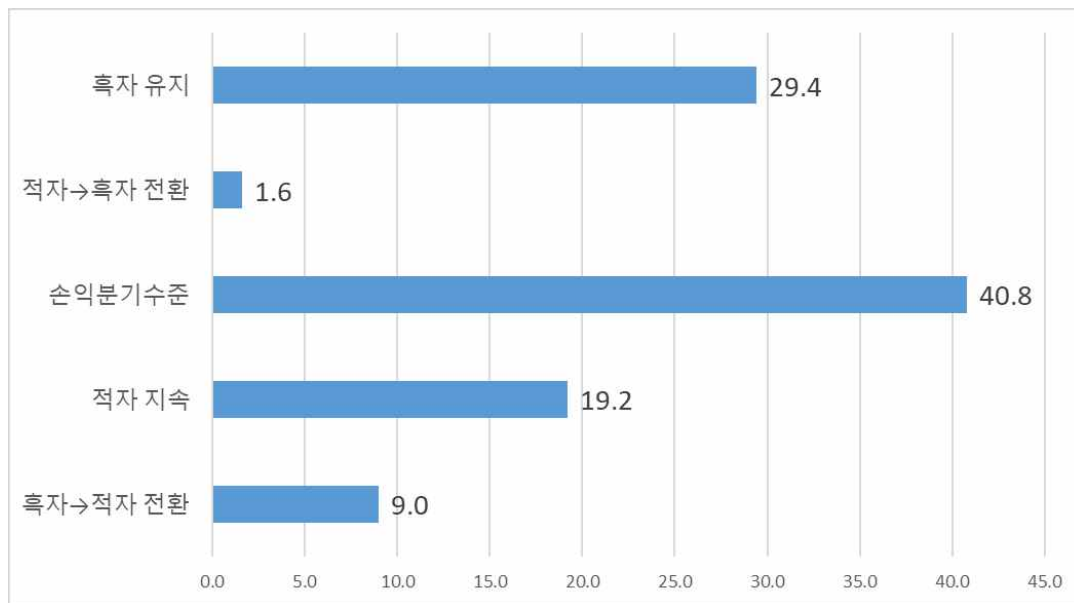
(1) 목표 달성 여부



구분	비중(%)
크게 미달	25.0
소폭 미달(10% 이내)	53.4
목표치 달성	15.9
소폭 초과(10% 이내)	5.7
크게 초과 달성	0.0

-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목표 달성 여부 조사 결과, ‘소폭 미달(10% 이내)’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뒤를 이어 ‘크게 미달(25.0%)’, ‘목표치 달성(15.9%)’, ‘소폭 초과 달성(10% 이내)(5.7%)’ 순으로 집계됐으며, ‘크게 초과 달성’ 응답은 없었음
- 영업이익 전망의 78.4%가 미달구간에 집중되며, 내수 부진과 고금리·환율 불안이 수익성 개선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기업이 비용 절감과 수출 증가로 소폭 개선을 기대하지만,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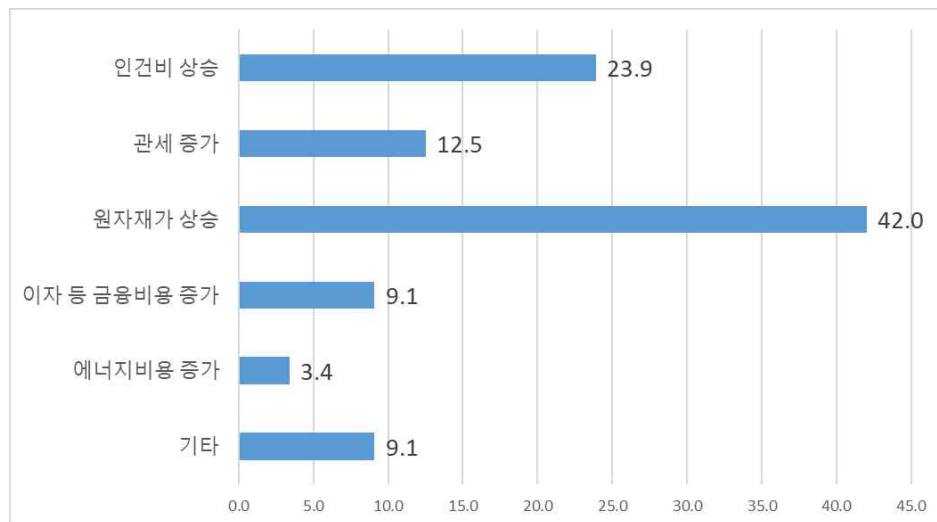
(2) 영업수지 실적



구분	비중(%)
흑자 유지	29.4
적자→흑자 전환	1.6
손익분기수준	40.8
적자 지속	19.2
흑자→적자 전환	9.0

- 조사 결과, 손익분기 수준에 머무른 기업이 40.8%로 가장 많아, 10곳 중 4곳 이상이 수익성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흑자 유지(29.4%) ▲적자 지속(19.2%) ▲흑자→적자 전환(9.0%) ▲적자→흑자 전환(1.6%) 순으로 응답이 분포함
- 전체 응답 중 59.0%는 흑자 또는 손익분기 상태를 유지했지만, 적자 비중이 약 30%에 달해 기업 간 수익성 회복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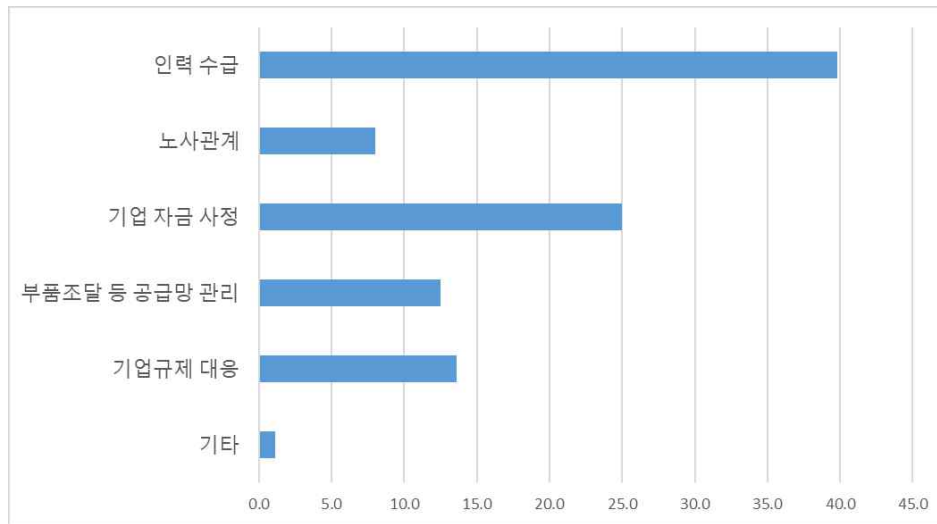
2-1. 비용 측면에서 수익성 약화시킨 가장 큰 애로요인



구분	비중(%)
인건비 상승	23.9
관세 증가	12.5
원자재가 상승	42.0
이자 등 금융비용 증가	9.1
에너지비용 증가	3.4
기타	9.1

- 기업들은 수익성 약화의 큰 애로요인으로 ‘원자재가 상승’ (42.0%)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남
- 원자재 외에도 ‘인건비 상승(23.9%)’ 과 ‘관세 증가(12.5%)’ 가 뒤를 이었으며, ‘금융비용과 에너지비용 증가(각각 9.1%, 3.4%)’ 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됨
-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이 제조원가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금융비용 증가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제한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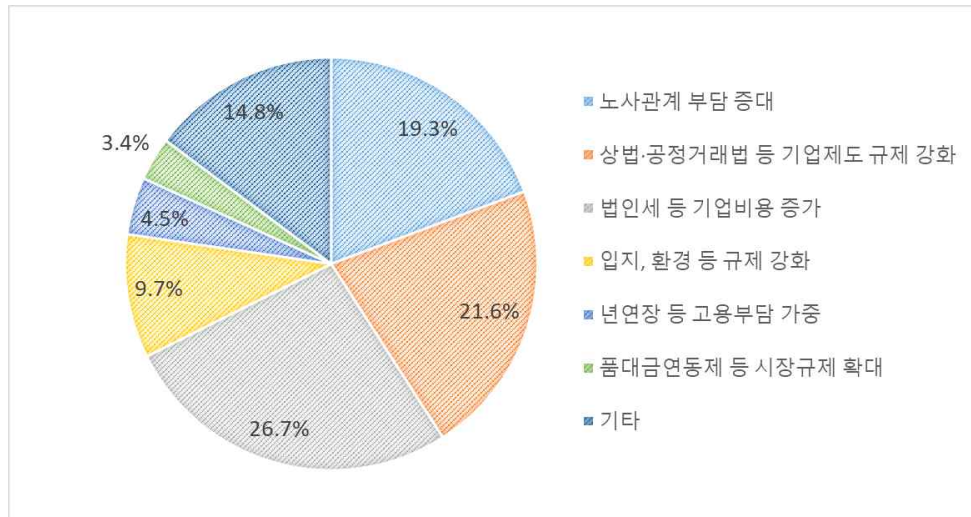
3. 생산·조직 관리 차원의 가장 큰 애로요인



구분	비중(%)
인력 수급	39.8
노사관계	8.0
기업 자금 사정	25.0
부품조달 등 공급망 관리	12.5
기업규제 대응	13.6
기타	1.1

- 전체 응답의 39.8%가 ‘인력 수급’을 생산/조직관리 차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음
- 숙련 인력 부족과 신규 채용난이 이어지면서 생산 차질과 인력 운영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기업 자금 사정(25.0%)’, ‘기업규제 대응(13.6%)’, ‘부품조달 등 공급망 관리(12.5%)’, ‘노사관계(8.0%)’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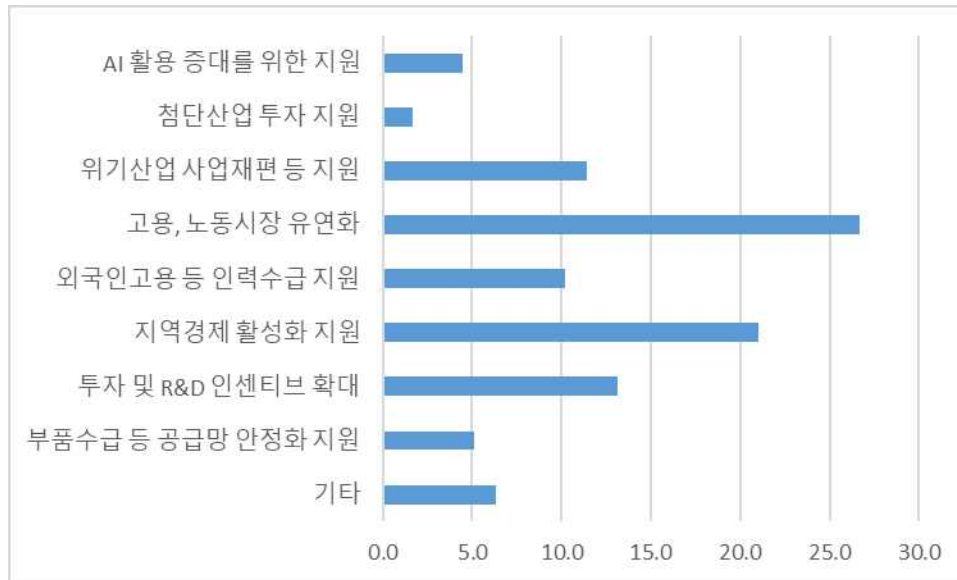
4. 기업 부담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입법 분야



구분	비중(%)
노사관계부담 증대	19.3
상법 · 공정거래법 등 기업제도 규제 강화	21.6
법인세 등 기업비용 증가	26.7
입지, 환경 등 규제 강화	9.7
정년연장 등 고용부담 가중	4.5
납품대금연동제 등 시장규제 확대	3.4
기타	14.8

-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입법 분야로 ‘법인세 등 기업비용 증가’ (26.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이는 세제 개편 및 비용 부담 심화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임
- 뒤를 이어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제도 규제 강화(21.6%)’, ‘노사관계 부담 증대(19.3%)’, ‘입지, 환경 등 규제 강화(9.7%)’, ‘정년연장 등 고용부담 가중(4.5%)’, ‘납품대금연동제 등 시장규제 확대(3.4%)’ 순으로 집계됨

5. 기업성장·경영실적 개선 위해 꼭 필요한 입법 분야



구분	비중(%)
AI 활용 증대를 위한 지원	4.5
첨단산업 투자 지원	1.7
위기산업 사업재편 등 지원	11.4
고용, 노동시장 유연화	26.7
외국인고용 등 인력수급 지원	10.2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1.0
투자 및 R&D 인센티브 확대	13.1
부품수급 등 공급망 안정화 지원	5.1
기타	6.3

- 기업들은 ‘고용, 노동시장 유연화(26.7%)’를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음. 근로시간 제도와 인력운용 규제가 경영활동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21.0%)’, ‘투자 및 R&D 인센티브 확대(13.1%)’,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11.4%)’, ‘외국인고용 등 인력수급 지원(10.2%)’ 등이 뒤를 이음
-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인력 운용의 자율성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줌